

상교우서는 “교우님들께 올리는 글”이란 뜻으로 수원교회사연구소의 주보 정하상 성인의 『상재상서(上宰相書 : 재상에게 올리는 글)』를 사모하여 지어낸 소식지의 이름입니다.

##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특집]

### 신자들의 증언 속에 드러나는 김대건 신부 ①

2021년은 성인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가 탄생한 지 2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최초의 한국인 사제로서 짧은 삶 속에서도 한국천주교회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김대건 신부를 기리기 위해 특집으로 신자들의 증언록에서 드러나는 신부의 생애와 활동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839년과 1846년 순교자를 대상으로 한 『기해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이하 ‘시복재판록’으로 줄임)에는 병오 순교자인 김대건 신부에 대해 여러 신자들이 진술한 증언이 확인됩니다. 한국교회사연구소에서 1997년에 펴낸 『성 김대건 신부의 체포와 순교』 제3장 시복 재판의 증언 기록(208~239쪽)에도 신자들이 진술한 내용(주제별로 편집됨)이 나오지만, 한글고어로 된 원본인 ‘시복재판록’을 저본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대신 뮌헨 주교가 시복 수속을 위해 ‘시복재판록’을 프랑스어로 번역한 자료(『바티칸 문서』에 수록)를 재편집한 증언들을 다시 한글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성 김대건 신부의 체포와 순교』 해제에서는 이 증언들을 『79위 시복 조사 증거서』에서 발췌했다고 설명하는데, 이 문헌은 1921년 로마에서 간행된 시복 재판 문헌 『포지시오』(Positio Super Martyrio, Causa Martyrii, Signis seu Miraculis)이며 한국천주교회 200주년 기념사업회가 1983년에 간행한 『103위 시복시성자료』 II권에 해당합니다. 또한 ‘시복재판록’에는 김대건 신부에 대해 진술한 신자가 전체 증언자 42명 중 32명이 확인되는데, 『성 김대건 신부의 체포와 순교』에는 16명만 나와 있습니다. 한글고어 원본을 바탕으로 제3장 시복 재판의 증언 기록을 수정·증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호부터 신자들의 증언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시복재판록’[2011~2012년 수원교회사연구소에서 간행한 대조역주본]을 바탕으로 김대건 신부의 생애와 활동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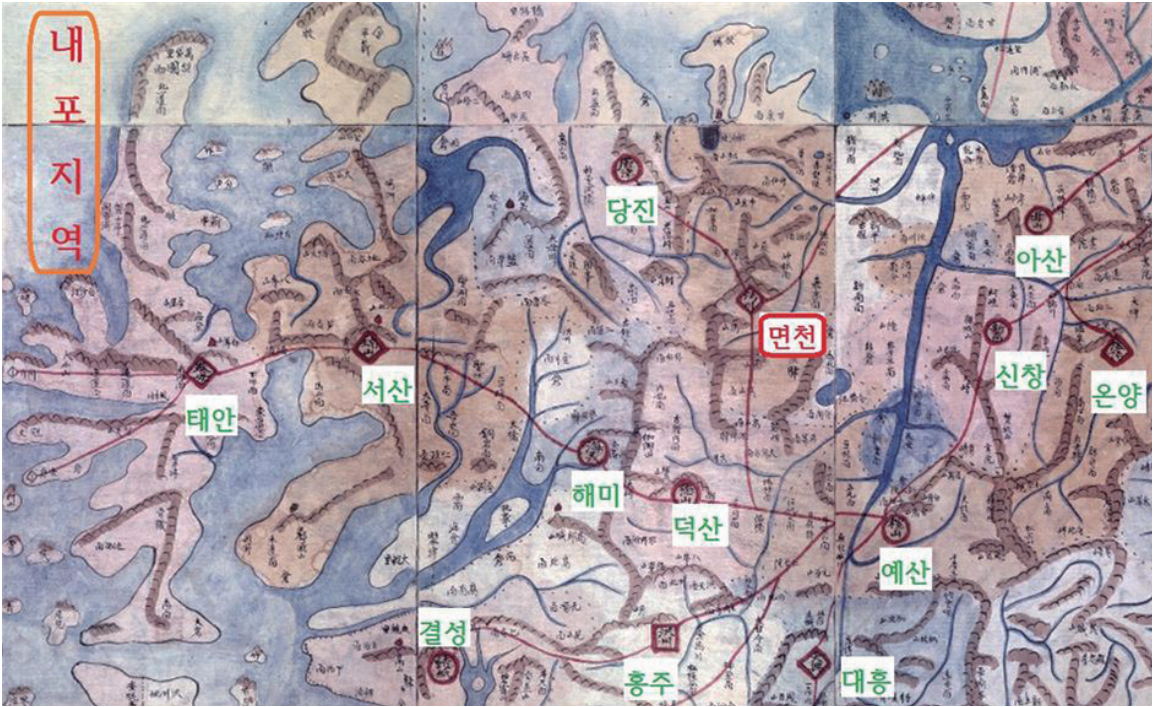
#### 김대건 신부의 부모와 고향

시복재판 51회차 증인 함 막달레나는 “내력은 자세히 모르오나 말 들은즉 충청도 교우 자손”이라고 진술했습니다. 95회차 증인 서 야고보도 “본디 충청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70회차 증인 오 바실리오는 “본래 충청도 내포(內浦) 사람”, 102회차 증인 이 마리아도 “본디 내포 사람”이라고 증언했습니다. 더 나아가 81회차 증인 김 프란치스코는 “본래 충청도 내포 사람이라. 부친은 기해년(1839)에 치명한 김(제준) 이냐시오”라고 했으며, 100회차 증인 최 베드로도 “내포 사람이온데 기해년에 치명한(김제준) 이냐시오의 아들”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즉 김대건 신부가 충청도 내포 출신으로 김제준의 아들이라는 것이 신자들 사이에서 알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에 대한 언급은 김대건 신부가 1846년 용인 지역에서 사목 활

동할 때 나옵니다.[68회차 임 루치아의 증언. '은이 상뚝이 모친땀' 모친 이름은 나오지 않음]

김대건 신부의 고향에 대해 좀더 구체적인 지명을 언급한 신자도 있는데, 97회차 증인 이 베드로는 “본래 충청도 면천(沔川) 사람이온데 태중교우”라고 했습니다. 충청남도 아산만 일대와 서해안 지역을 아우르는 내포 중에서도 면천[현재 당진군에 속함]이 김 신부의 고향이고 부모가 모두 신자라는 것입니다. 모방 신부의 서한에 첨부된 신학생 서약서(1836.12.2)에서 언급되는 김대건의 고향 ‘면천 슬피(mintsiensolmay)’와 가장 비슷한 증언이기도 합니다.

이석원 프란치스코(연구실장)



내포 지역 - 면천 [청구도(靑邱圖, 김정호 1834년 제작)]

## 모방 신부의 서한에 나타나는 신학생 김대건

지난 호에서 알려드린 바와 같이 수원교회사연구소에서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를 신학생으로 선발하고 조선을 떠날 때까지 가르쳤던 성 모방 신부의 서한집을 준비 중입니다. 3월호 지면에서는 모방 신부가 전해주는 김대건 신부에 관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살펴볼 서한은 중국 마카오에 위치했던 파리외방전교회 극동대표부의 르그레주아 신부에게 보낸 1836년 12월 3일자 서한과, 이 서한에 첨부된 12월 2일자 신학생들의 서약서입니다.

김대건 신부의 출신지에 대해 모방 신부는 “충청도 면천 솔피”(mintsien solmay Tchongtchingto)라고 쓰고 있습니다. 솔피는 현재 충남 당진시 우강면 송산리입니다. 산에 소나무가 많아서 ‘솔미’, ‘송산’이라고도 하며, 조선시대에는 면천군 범천면에 속했고, 1914년 당진군으로 편입되었습니다. 당시 조선 신자들의 증언을 살펴보면 김대건 신부가 충청도 내포 출신이라고 증언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고 어떤 신자는 구체적으로 ‘면천’이라고 증언하기도 하였지만, ‘면천 솔피’라고 명시한 기록은 모방 신부가 작성한 신학생 서약서가 유일합니다.

또한 김대건 신부의 부모, 신학생 선발 순서, 김대건 신부가 조선에서 받은 교육 기간을 이 서한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모방 신부는 소년 김대건의 부모에 대해서 “가장 훌륭한 교우에 속하지만, 가난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미 신학생으로 선발되어 기초 교육받고 있던 다른 두 명, 최양업 토마스(2월 도착)와 최방제 프란치스코(3월 도착)도 같은 처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발된 김대건은 7월 11일부터 12월 3일 마카오로 출발하기 전까지 약 5개월간 모방 신부에게 교육을 받고, 추가 파견이 불가능할지 모른다는 모방 신부의 염려에 따라 신학생 그룹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보낼 수 있을 기회가 없을까 걱정되어, 저와 함께 4, 5개월밖에 보내지 않았지만 한 명을 더 보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제가 보내는 조선 소년들이 가장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신 곳에 신학교를 세워주시고 (인문교육과) 신학교육을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발하기 하루 전날인 12월 2일, 소년 김대건이 조선 천주교회의 장상에게 순종과 순명을 서약하였다는 사실도 모방 신부가 작성한 서약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상 앞에서 복음서에 손을 얹고 한 엄숙한 서약이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나와 나에 이어서 조선 천주교회의 장상이 되실 분들에게 순종하고 순명하기로 서약하느냐?” “서약합니다.”

이 서한과 서약서의 자필 영인본, 판독본, 역주본은 『상교우서』 58호(2018년 봄호)에 수록되어 있고, 연구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혜정 마리나(연구원)

## 『병인치명사적』에서 순교자 김 서방 찾기

사람을 찾기 어렵다는 표현을 할 때 우리는 ‘서울에서 김 서방 찾기다.’라는 말을 씁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성씨는 김(金) 씨이고 이(李) 씨와 박(朴) 씨가 그 뒤를 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중 ‘김, 이, 박’ 씨 성을 가진 사람은 2천 2백만 명[2015년 통계]이 넘는데, 두 명 중 한 명은 이 세 성씨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원교회사연구소에서는 최근, 병인년(1866년) 대박해에 순교하신 신앙선조들의 삶과 영성이 담겨 있는 증언기록 『병인치명사적』(대조역주, 전 6책)을 간행했습니다. 이 방대한 기록 안에는 1,400여 명이

넘는 순교자와 600여 명의 목격 증언자가 등장합니다. 이 기록을 살펴보면 특정 순교자를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특히 신앙선조들은 이름 대신 본명(本名)이라 하며 세례명을 많이 씁니다. 목격 증언자들은 순교자들 이야기를 할 때 성과 세례명 또는 세례명만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누구누구의 가족으로만 등장하기도 합니다. 옛 이름은 아명(兒名)과 관명(冠名) 또는 자(字)나 호(號)로 불리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그와 또 다른 이름이 족보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다양한 이름 중 하나라도 증언 기록과 관찬 기록 등에서 찾을 수 있다면 그나마 분류할 수 있어 다행인데, 『병인치명사적』에는 성과 세례명만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김, 이, 박 씨의 순교자가, 베드로와 바오로 또는 마리아 같은 신앙선조들이 당시 흔히 사용하던 세례명을 쓰셨다면?

『병인치명사적』에는 순교자 김 베드로가 열일곱 분, 김 바오로가 여덟 분, 김 마리아가 일곱 분 등장합니다. 이 외에도 같은 이름으로 불렸지만, 다른 행적을 보이신 여러 순교자가 계십니다. 동명이인의 순교자를 구분해서 찾아볼 때 수원교회사연구소에서 펴낸 『병인치명사적』 대조역주본 6책 부록 편이 나침반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을 가진 순교자라도 순교 지역과 형태, 나이와 순교일 등 여러 정보를 한눈에 살펴보면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병인치명사적』에서는 순교자 ‘김 서방’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여러 김 서방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혹 집안 어른들로부터 ‘순교자 집안의 후손’이란 소리를 들으며 신앙생활을 해 왔는데, 그 순교자가 누구인지 모르다면 『병인치명사적』에서 찾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백신옥 베드로(연구원)

## 소식과 공지

### ▣ 『병인치명사적』(대조역주본 전 6책) 주문 안내



-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 QR코드로 주문하시는 분께는 10% 할인된 가격에 무료로 배송해 드립니다.
- 주문을 모아서 매주 1회 일괄 배송합니다.



### ▣ 『교회사학』(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18호

- 2021년 3월 31일 간행

#### ▶ 정기후원(CMS) 전환 안내

매월 자동이체로 후원해주시는 후원회원님께서서는 CMS 출금 방식으로 전환을 부탁드립니다. 후원해 주시는 내역(성함과 금액)을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어 업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거래 은행에 자동이체 송금을 먼저 해지하시고, 연구소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 후원금 이체 은행

농 협 : 221091-55-000541 (예금주: 천주교 수원교구 수원교회사연구소)  
신 협 : 131-013-870130 (예금주: 수원교회사연구소)